

## 圖書館統計의 國際標準化 (一)

Frank L. Schick 저

김세익, 박영순, 역

UNESCO Bulletin for Libraries, XXX (Jan.-Feb. 1971)의 卷頭論文으로 掲載된 Frank L. Schick의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Library Statistics의 前半部를 번역한 것이며 後半部는 도협월보 7월호에 게재될 것입니다. 雖然 주

### 圖書館·統計·標準

圖書館은 생겨난 이래 讀者들을 圖書館자원으로 안내하기 위한 目錄의 필요상 保有자료에 관한 記錄을 지녀왔다.

도서관은 소장내용을 알려주는 기록을 반드시 가져야 하며 今年 혹은 지난 해 동안에 쓰여진 財源을 例示하므로써 다음 해의豫想經費에 대한 근거를 보여 주어야 한다. 이러한 記錄들은 統計性 데이타를 포함한다.

“統計學”이라는 용어가 처음 쓰인 것은 국가정부에 중요한 인구 혹은 출생, 사망, 조세, 무역, 국내상업 등에 관한 資料를收集, 研究, 解釋하고자 하는데에 있었다. 오늘날 “統計學”이라는 용어는 전적으로 數的 데이타에, 그리고 전전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數的 데이타의收集와 解釋에 관계하고 있다. “國際統計學”이란 줄이는 여러 국민과 국가의 사회적, 경제적, 인구학적 특성이 의미있게 비교될 수 있도록 提示된 데이타의研究 및收集, 解釋을 말한다. 국내 및 국가간의 기관에 대한統計學的 比較에는 均一性 있고 標準化된 概念과 定義, 分類가 요청되고 있으며, 이는 有効하고 믿을 만한 결론을 얻기 위함이다.

標準화와 같은 標準을 啓發·使用하는 過程을 뜻한다. 標準은 커뮤니케이션, 수송, 공업생산, 상품의 국가·국제적 교환에서 뿐만 아니라 조사연구활동의 여러 부문에서도 중요한 역할은 한다. 標準은 과거의 經驗을保持하면서 또 이를 미래의 作業에 應用하는 手段이기도 하다. 標準의 成文化는 근본적인 機能과 方法, 目的의 類似性 내지 同一性을 강조하므로써 서로 다른 觀點과 必要를 調和시키는 데에 기초를 두고 있다.

### 國際圖書館統計의 發達

(1853—1950)

國際의 比較를 하기 위한 統計標準을 발달시키려는

시도는 1853년 브뤼셀에서 열린 첫 International Statistical Congress에서 시작되었다. 1867년 이탈리아의 플로렌스에서 열린 여섯번째 「大會」에서는 圖書館의統計가 이 「大會」의 작업계획에 포함되도록 추천되었다. 약 25년동안 이 「大會」는 국가통계의 均一한 데이타收集에 호응하여 둘 것을 지향하고 국제적인 比較可能性에 도달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International Statistical Congress가 해체된 1876년 즈음에는 두 가지의 목표를 성취하였으며, 이는 公式(정부의)統計의 확립과 均一統計標準의 제발이다.

19세기 후반에 이 標準은 많은 주제분야에 영향을 끼쳤고, 최초의 국가도서관 통계는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1930년대까지 대부분의 선진국 도서관인들은 統計學에 대해 알지 못하였거나 혹은 문제해결을 위한 統計學的方法論을 짜낼 수 있도록 통계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할 줄도 몰랐다. 대개의 선진국들은 20세기 중반에 圖書館統計를 다소收集, 出版하였다. 1926년의 International Statistics Association과 International Institute of Intellectual Co-operation 合同會議는 국제수준에서의 圖書館統計에 관한 일반문제들로 주의를 환기시켰으나, 이들이 詳述한 추천사항은 뚜렷한 결실을 맺지 못했다. 그러나, 1932년에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IFLA)는 圖書館統計小委員會를 창설하였고, 이 小委員會는 圖書館을 위한 데이타收集計劃을 세웠다. 무슨 데이타를收集할 것인가에 대한 동의와 이러한 연구를 맡아서 할 시행기관의 결핍으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1930년대와 1940년대에는 국제통계협동이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의 노력으로 통해 계속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統計協同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제활동이 정지되었다. 1946년부터 전문분야에 여러 기관들을 가진 「국제연합」(United Nations)에서 國際統計協同을 계속하였다.

### 圖書館統計標準化

(1950—1970)

1950년에 시작된 「유네스코」의 통계업무는 圖書館을 첫째번 계획에 포함시키는 한편 여러 나라 圖書館간의

국제 비교를 가능하게 할 標準化의 필요성을 고려에 넣었다.

첫 「유네스코」圖書館統計는 1950년도의 것으로 1952년에 출판되었다. 그전 해인 1951년에 「유네스코총회」는 代表理事가 “教育 및 科學, 文化分野에 있어서 統計의 國際比較可能性을 改善시킬 標準과 基準을 研究”하도록 위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1953년 「유네스코」는 *Availability and comparability of library statistics* (doc. Unesco/STR/13, Paris, 8 June 1953)라는 標題의豫備報告書를 발표했다. 이 文書가 國際協同을 위해 제안한 “國家 및 國際團體들이 協同을繼續한다면 圖書館統計의 有効性과 比較可能性에 改善은 결국 이루어 질 것이다”라는 부분은 特別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IFLA는 1953년 비엔나회의에서 이 과제를 토의하고 회원들에게서 논평을 얻고자 이를 배부하였다. 이를 가운데 14명이 제출한 改正案에 기초하여 「유네스코」는 *Standardization of statistics concerning libraries and book production*이라는 報告書를 작성하였다. IFLA는 다시 1954년 자그레브회의에서 이 연구를 더욱 철저히 하였다. 「유네스코」는 1955년 같은 書名의 報告書로서 담하였고, 이 報告書는 IFLA의 1955년 브렛셀 회기중에 IFLA의 인준을 얻었다.

「유네스코」는 1955년 이전에 또 하나의 圖書館統計調查를 실시하였고, 그 후 대략 2년마다 실시하였다. 117개국의 데이타를 提示한 *Statistics in libraries* (doc. Unesco/ST/S/3, March 1959)라는 標題의 1959년 「유네스코」報告書에서는 “圖書館의 定義와 分類는 나라에 따라 상당한 差異가 있다”고 중요한 평을 했다. 또한 “充分히 滿足스러운 決果는 너무 廣範하고 多樣한 分野이므로 速히 期待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반면 “圖書館統計의 標準化에 關聯하여 推薦事項을 應用함”을 認定, 註記하였다.

1960년 후 「유네스코」는 절적 향상을 본 圖書館調查를 실시, 보다 많은 나라를 취급하였으나 正式標準化라는 주요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1963년 IFLA는 소피아 회의에서 統計에 관한 결의안을 많이 통과시켰으며, 다음과 같이 끝을 맺었다. “IFLA의 격려를 받은 「유네스코」는 IFLA와 協力하여 圖書館統計標準화라는 이 課業을 可能한限 早速히着手하여 IFLA는 그 산하의 National Commissions for Unesco를 격려하여 圖書館統計의 國際標準啓發을 「유네스코」事業計劃에 포함시킬 것을 推薦·認可하게 한다”.

IFLA는 1964년 로마에서 「유네스코」로 하여금 그 사업계획에 圖書館에 관한 有効하고 믿을 만한 인포메이션에 대한 統計標準을 포함시킬 것을 재차 권하였다.

같은 해에 「圖書生產과 雜誌에 關한 統計의 國際標準」(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Statistics relating to Book Production and Periodicals)에 관계된 「유네스코 統計會議」(Unesco Statistics Conference)가 파리에서 열렸다. 이 모임은 「유네스코」총회에 보낸 추천 사항에서 “事務局은 圖書館統計의 標準化 可能性과 圖書生產과 雜誌에 關한 統計와의 統合을 研究”하도록 권하였다.

같은 해, 「國際標準機構」(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부다페스트회의에서 圖書館統計에 관한 결의안이 많이 통과되었으며, 이는 用語의 標準化運動을 라이브라리안쉽과 도큐멘테이션에 까지 확장하고,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圖書館統計委員會는 IFLA와 협동하여 圖書館統計標準草案을 완성하고, 이러한 合同會議의 결과로 산출되는 協同作業解說을 가능한 한 빨리 「유네스코」에 제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였다. 合同會議는 두 번 개최되었으며, 처음에는 헤이그에 있는 ISO본부에서 1967년 5월에 열렸고, 다음은 1968년 가을 파리에서였다. 다음의 IFLA와 ISO 年例會議에서는 두 기관의 統計委員會의 集合결과를 모든 회원으로 하여금 경청케 하였고 1968년 IFLA와 ISO가 공동으로 발행한 *Th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library statistics. A progress report*라는 出版物에 報告하였다.

「유네스코」총회는 1967년 10월의 제16차 회기에서 代表理事에게 “제16차 會期에서 總會에 依해 採擇될 國際的인 推薦事項을 立案할 目的으로 圖書館統計의 國際標準化에 對한豫備研究”를 작성할 것을 위임하였다.

IFLA는 프랑크푸르트에서 1968년 회의에서 圖書館統計에 대한 몇 가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圖書館統計의 重要性이 커져 간파, 또 이것이 圖書館統計에 뜻이 깊음을 참작하여, IFLA의 위원회명칭 Committee on Library Statistics and Standards를 덧붙였다. 그리고 Unesco bulletin for libraries의 統計에 할애될 特別란과 International library statistics handbook을 마련하도록 調查研究費에 대해 유네스코에 사의를 표했다.

「유네스코총회」는 15차회기에서 “圖書館統計標準화에 관하여 會員國에게는 推薦形式으로 採擇될 國際規定作成이 바람직한가”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유네스코」는 이 주제에 관해豫備報告書를 마련하였으니 곧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librbray statistics*로서 비평과 논평을 위해 「유네스코」會員國에 배부되었다.

## 「유네스코」「圖書館統計會合」

(1970년 5월)

「圖書館統計의 國際標準」(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Library Statistics)에 관한 추천사항 초안을 심사할 「政府所屬專門家特別委員會」(Special Committee of Governmental Experts)는 「유네스코」에 의해 1970년 5월 19일부터 28일까지 소집되었다. 47개국이 73명의 대표를 파견하였고, 8명의 읍저버는 7개의 國際機關을 대표하였다. 專門家들은 다음과 같은 會員國을 대표하였다. 즉, 아르헨티나, 오스트렐리아, 오스트리아, 벨지움, 블리비아, 베마, 캐머룬, 카나다, 콩고인민공화국, 체코슬로바키아, 엔막, 에쿠아ドル, 핀란드, 프랑스, 독일연방공화국, 파테말라, 온두拉斯, 향가리, 인도, 인탈리아, 상아해안, 자마이카, 일본, 요르단,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태국, 우크라이나, 소련, 통일아랍공화국, 영국, 미국, 베네수엘라, 월남, 유고슬라비아 등이다.

非政府機關에서 읍저버와 「교황청」과 「세계보건기구」, 「아랍국동맹」의 대표들은 全會合에 참가하였다. 읍저버들이 대표한 非政府機關은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Documentation,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s, International Statistical Institute이다.

이 會合에서 눈에 두드러졌던 특징은 모든 參加者들의 관심이 뜻있는 記錄을 이루는 데에 있었다는 것이다. 圖書館責任과 運用의 實際상의 差異때문 뿐만 아니라 文化, 歷史, 言語의 差異때문에도 討論은 때때로 매우 진지하였다. 會合도중 약 160개의 修正案이 제출되거나, 철회, 수락, 부결되었다.

「報告書」와 「推薦草案」이 포함된 「草案報告書附」는 委員會에 의해 討論 마지막에 만장일치로 수락되었고, 또한 1970년 10월 12일부터 11월 14일까지 열린 「유네스코」총회 제16차 회기에서 채택되었다. 「推薦事項」은 다음 호에 실릴 제2부에 나타나 있다. 標準은 一般推薦事項과 明細推薦事項으로 나눌 수 있다. 「委員會」에서 討論된 主要點은 아래에 실려 있다.

## 一般推薦事項

본 委員會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즉 國際統計는 每3年마다 收集되어야 하며, 의뢰된 데이터는 回答日字에 앞서 가장 최근의 1년간을 포함하여야 한다.

公共圖書館의 경우, 圖書館써어비스를 받는 人口에 관한 데이타는 公共基金에 의해 재정원조를 받는 公共圖書館단이 포함되어야 한다.

圖書, 雜誌, 그리고 寫本에 관한 데이터收集 이외에, 또 microforms 및 雜誌, 寫本에 관한 데이터는 별도

로 收集되어야 한다. 이와 비슷한 방법은 所藏資源에 年間 침가된 資源에 대한 데이타를 報告하는데 쓰여졌다. 所藏資源의 계산 및 年間增加量, 貸出量, 復本에 대한 單位가 고려되었으며, 여러 카테고리에 대한 결정을 나라마다의 實제와 각국의 데이타에 대한 一貫性을 확보하려는 必要性을 고려하여 내려졌다.

請求記錄의 復本을 제공함으로써 圖書館資料의 貸出이 일만큼 영향을 받는가에 대한 데이터의 收集이 될 수 있다고 고려되었다. 이 경향이 계속되도록 허용하되, 利用者에 대한 圖書館의 貸出뿐 아니라 國內 및 國際圖書館相互貸借에 관해 관찰할 것을 권하였다.

經費에 관해서는 인건비와 자료구입비와 같은 일반 비용과 종지출에 대한 데이타만을 수집하기로 하였다. 人事問題에 관해서는 現狀況을 감안하여 國家간의 比較可能性을 최고로 提供하는 定義와 計算方法을 채택하기로 하였다.

## 明細推薦事項

보다 詳細한 推薦事項에는 本文에 사용된 가장 중요한 概念에 대한 定義가 있고 統計데이타의 報告方法을 제시한다. 標準은 三部分으로 나누어 있다.

第一節은 範圍와 定義를 다루며, 圖書館, 運營單位 그리고 奉仕條件에 관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밖에 다음과 같은 데이타種目이 定義되어 있다. 即 所藏資源, 年間追加資料, 雜誌, 標題, 卷, 圖書館利用者, 諭約貸出者, 資本支出, 定規도서판인(피고용인과 구입자료에 대한) 平常支出에 대해서이다.

第2節은 圖書館의 分類體系를 다루며, 國立圖書館과 高等教育機關의 圖書館, 기타 주요한 一般圖書館, 學校圖書館, 特殊圖書館, 公共(혹은 大衆)圖書館을 취급한다.

第3節은 데이터를 데이터로 간주하며 收集方式을 제시한다.

報告되어야 할 種目들을 열거하면 (1) 館種으로 구분한 圖書館數, (2) 圖書館써어비스를 받는 人口, (3) 所藏資源內容(冊 및 雜誌, 寫本 microforms, microfilms), (4) 所藏資源에 대한 年間追加資料, (5) 國內 및 國際圖書館相互貸借, (6) 圖書館相互貸借대신의 復寫活動, (7) (8) 資料 피고용인, 建物, 建物臺地에 관한 圖書館經費, 圖書館職員의 類와 型과 같다.

열흘간의 政府所屬專門家의 會合을 통해 많은 代表들은 標準이 소중한 出發點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이는 이 會合과 이들의 마지막 報告書에서 얻은 아마도 가장 큰 利得일 것이다. 다른 代表들은 「유네스코」 會合의 준비로 인해서 그들 圖書館의 統計作業을 能率化하였으며, 그전에 비해 보다 효과있게

일할 수 있는 나은 상황을 얻었다고 시사했다. 그밖의 대표들은 標準의 觀點中에는 보다 마음에 쓸리는 것들이 있는 반면, 標準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여러 해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충분히 탐구되지 않은 새 分野는 앞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가운데에서는 視聽覺資料 및 기타 非印刷圖書館資料의 統計와 圖書館使用統計를 들 수 있다. 私的인 討論에서 종종 배두되는 것으로는 圖書館建物과 넓은 카테고리에 의한 所藏資源의 깊고 의미있는 評價(즉 人文科學, 社會學 등의 分野에서 資料型에 관계없이 保有한 資料), machine-readable forms, tabulation, printout의 ディータ收集에 관한 컴퓨터使用과 機械의 圖書館機能에 대한 컴퓨터 使用에 대한 인포메이션의 統計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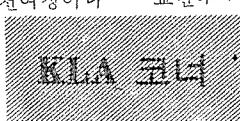
1970년 8월부터 9월까지 모스크바에서 열린 IFLA 회의에서 IFLA 및 ISO, 구라파사회주의 국가의 「圖書館統計委員會」는 위와 같은 문제를 다룬 繼行會合을 계획하기로 결정했고, 1971년 동안에 이러한 會合을 개최할 것에 임시동의를 얻었다. IFLA와 ISO, 구라파사회주의 국가 「統計委員會」를 통해 詳細圖를 產生하는 方式이 成功의 例였기 때문에, 이러한 결차를 다시 따를 것과, 결과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유네스코」의 「統計部」(Statistical Division)에 연락할 것에 합의를 얻었다.

### 結論

1970년 10월부터 11월까지의 「유네스코」총회 제16차 회기에서, 推薦事項草案이 채택되었으며, 이는 밑을 만

### misprint

우리나라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해인사 팔만대장경은 놀랍고도 대견스러운 우리의 귀중한 문화재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해인사에 가서 우선 판목수가 8만1천여장이 되는 방대한 수에 놀라고 마치 그 많은 판목수가 대장경의 가치인 줄 알지만 사실 그 수는 그다지 놀랄 것이다. 중국 송판대장경은 16만장이나 되었다고 한다. 해인사 대장경의 귀중한 이유중의 하나는 그 많은 판목에 적힌 문장에 소자(誤字)가 전무하다는 사실이다. 고려시대의 사람들은 사람의 힘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을 해낸 것이다. 글을 쓰거나 책을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이 교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하는 것을 늘 절감하고 있다. 자유 당시대에 어느 신문사에서 李承晚大統領의 大자를犬자로 잘못 적어서 크게 경친 일이 있다. 또 어느 잡지에서는 統자를 빠트려서 李承晚大領으로 했기 때문에 편집장이 잡혀간 일도 있다. 역사적으로 유명



한 圖書館데이터의 重要性과 이것의 圖書館運用과 서비스改善에의 價值를 확신한 온세계 많은 사람들이 한 세기동안 노력한 결과 성공적으로 끌맺어졌다.

이 文書는 國家的으로나 國際的으로 보다 더 現代 意味를 띠고, 믿을 수 있고, 比較可能性이 있는 圖書館統計를 收集하여야 하며, 이러한 文書를 草案함이 專門家들에게는 도전이었으며, 마찬가지로 圖書館人과 統計學者들이 이 標準을 利用함은 역시 하나의 도전이라 하겠다.

「유네스코」會員國은 自國의 데이터收集과 出版을 계속하되 이를 *Unesco bulletin for libraries*에 報告하여야 하며 國際的인 데이터收集과 出版은 「유네스코」에 의해 계속되어야 한다. 이같은 協同으로 우리는 한 세기전에目標했고, 現代 統計情報體系의 要所인 國際圖書館統計標準과 ディータ收集과 出版, 報告의 施行規定의 確立에 도달할 것이다.

### 註

1. "Congres international de statistiques, reuni a Florence...septembre- octobre 1867." *Compte rende des travaus de la VIe session*. Florence: Imprimerie G. Barrera, 1868. p. 152.
2.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Library Statistics. Final Report.* (doc. COM/MD/6, 10 July 1969).
- 46 p.
3. *Comments on the Preliminary Draft Recommendation.* (doc. COM/MD/14, 26 February 1970; doc. COM/CONF. 12/3 to 12/22, 14 May 1970).

한 오자소동은 妾淫聖書(Adultery Bible)사건이다. 1631년 런던에서 발간된 바이블인데 모세의 十戒중에 「너이는 간음하지 말라」에서 부정의 not를 빠트려서 「너이는 간음하라」가 되어 버렸다. 출판 후에 이 사실을 발견하고 회수했으나 아직도 11부는 그대로 현존하고 있으며 귀중도서 취급을 받고 있다. 필자가 교단에 서던 초기에 텍스트로 쓰던 중국학자의 책에 불경의 하나인 父母恩重經의 恩자가 恩자로 잘못 인쇄되어 있었는데 불교자식이 없던 필자는 父母恩重經이라고 학생들에게 강의 했다. 이것

은 僞經인데 思重經도 말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맞는 줄 알고 여러 해 동안 거짓강의를 하다가 몇해 후에 잘못을 알고 冷汗十滴 한 일이 있다. 誤植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 「도협월보」 5월호의 KLA코너 「茶房과 圖書館」에서도 18행에……자료의 이용도가 낮아도 열람자의 출입이 적으며 도서관의 건물이 아무리 웅장하고……에서도 낮아도는 「낮고」 적으며는 「적으면」이 이렇게 잘못 인쇄되었기 때문에 필자가 무식한 사람으로 세상에 알려져 버렸다. 원통하고 억울하다. (SIK)